

孫 “영수회담 없이 등원 하겠다”

김총리, 과학벨트·신공항 해결사 나서나

긴급 기자회견...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 제외”

국회 두달만에 정상화 늦어도 다음주 열릴 듯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국회에는 등원하되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될 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연연하지 않겠다”며 “청와대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심은 가슴에 금간 성북동 비둘기처럼 떠나가고 있다. 나는 이 애타는 민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었다”며 “날치기 국회에 대한 유감 표명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다.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민생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즉각 등원을,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며 ▲구제역 대책 및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쟁기 ▲남북군사회담 등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입학법 등의 위법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들은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킬 것이고 저는 저대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손 대표가 영수회담 거부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린 데는 구제역과 전세난·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비록, 애초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입학법 등의 위법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들은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킬 것이고 저는 저대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손 대표가 영수회담 거부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린 데는 구제역과 전세난·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비록, 애초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입학법 등의 위법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들은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킬 것이고 저는 저대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손 대표가 영수회담 거부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린 데는 구제역과 전세난·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이처럼 손 대표가 영수회담 거부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린 데는 구제역과 전세난·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李 대통령 방송 좌담회서 힘 실어줘

최근 국재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LH 공사 지방 이전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놓고 각 지역 간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김총리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총리가 각종 국가 정책과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5개월이 지난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현안이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김 총리의 행보에 정치권과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과학벨트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입지 선정위를 구성하지만 총리실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김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김 총리도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가 맞서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로 김 총리가 조정에

나서야 할 사안이며 한국도지주개발사(LH)의 이전 문제도 전복과 경남이 정면충돌하고 있어 김 총리의 조정력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처럼 김 총리가 민감한 국책 과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것은 총리실이 정책 및 현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 총리의 이미지가 ‘비(非)정치적’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최근 현안들이 휘발성이 강해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못하며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총리를 앞장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이재오 ‘악연’ 계속?

여당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장관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박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나타난 긴장감은 아직 박 전 대표가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나 결국은 두 사람이 결국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설부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대선 2년 전부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것은 국민을 많이 괴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李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발언에 친박, 대응 자제속 분노 ‘부글부글’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소속 의원 및 명망 대응을 하는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2004년 당 연설회에서의 설전,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대립,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둔 친박계 낙천 등 두 사람간 악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친박진영은 특히 이 장관이 이 같은 행보를 통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친박은 박 전 대표를 겨냥한 이 장관의 언급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때리기’가 인신공격성으로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후보 단일화 내게 맡겨달라”

순천 은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2012 대선 진보개혁 세력 야당 후보 단일화 과업을 저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순천시 탑웨딩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전남도당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012년 의회권력 및 정권 교체체를 이루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2012년 4월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진보개혁 야당 후보는 한사람이어야 하는 만큼 저에게 후보 단일화 과업을 맡겨준다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3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남도당 대회에서는 강용주 현 여수시의원이 제 2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4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대선 연대와 단일화에 대한 가능자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순천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전남도당 당원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환 상임고문, 유시민 당대표 후보자, 이재정 대표, 강용주 전남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될 것”이라며 “호남이 전국적 야권연대와 통합에 중요한 기틀을 놓자”고 말했다. 총선에 나선 이재정 당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역사적 기로”라며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도덕적 토대마저 무너뜨린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2월 국회 전략 중심

野 “민생법안 특위부터” 與 “상임위서 논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13일 국회 등원 결정으로 국회 정상화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 앞두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론과 함께 구제역·전세난·고물가 등 민생 현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정점에 대해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등원 협상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

위 구성을 포함해 야당에 ‘개헌 논의 동향’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현안=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어 구제역·전세난·고물가·일자리 문제 등 4대 민생현안을 놓고 정책 경쟁이 펼쳐질 전망

이다. 한나라당은 당정책회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민생 문제를 정면에서 맞지 않고 국회에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여권의 ‘민생 무능’을 질타할 수 있으며 수권야당으로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을 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격을 정치 공세화하기 위해 특위 대신 상임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FTA 논쟁 본격화=한·미 FTA

추가 협정문의 국회 제출이 임박한 데다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는 등 ‘FTA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손 대표가 13일 “글로벌 양보협정이 된 한·미 FTA를 저지하고 한·EU FTA 관련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것만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6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모집기간	2011. 1. 17(월)~3. 04(금)
수업기간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중점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아간반 18:00~21:30
수강료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수료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평가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3월 11일(금)~2011년 12월 16일(금):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원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등록기간: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심관 4층)
- 등록비용(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1BT 방식 평가는 화상실판방식인
입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튜팅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과 1:1 독해 · 문법 강의를 한다

결론은 多讀, 多聽, 多習 이다
수강료는 월 100,000원 입니다.

선생님이 회화가 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 수 있다!

- 초, 중, 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 교수님, 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어민 1:1
입구정영어가 · 리딩
ah-english.com | 070-7433-0594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2기)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모집기간	2011. 1. 18(화)~3. 5(토)	2011. 1. 18(화)~3. 12(토)
수업기간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모집인원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직위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평가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직위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평가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